

나주시, '2023년 지역공동체활성화 주민참여사업' 공모 추진

20개소 내외서 총 사업비 6천300만 원 지원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3년 지역공동체활성화 주민참여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해 모임, 커뮤니티 공간을 확장하고 다양한 분야 공익활동과 지역공동체를 발굴·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공모 분야는 주민 5인 이상의 공

동체를 대상으로 한 '모樂모樂'(주민 5인 이상 공동체), 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공간을 소유·임차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법인 대상의 '들樂날樂' 2개 분야다.

올해는 20개소 내외에서 총 사업비 6천3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 자격은 사전설명회에 참석한 주민(공동체)에 한해 주어진다.

사전설명회는 3월 2일(오전 10시, 오후 7시), 3월 3일(오후 2시) 총 3회에 걸쳐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나주시 배뫼3길 19-3·4층)에서 열린다.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은 유선번호(061-339-2632)에 인원수와 참석 일시를 문자로 전송하면 된다.

시는 설명회 이후 사업계획컨설팅, 심사 절차를 거쳐 4월 초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계자

는 "공익, 공동체 활동에 관심을 갖는 주민들을 위한 소모임, 커뮤니티 공간을 다양화,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하겠다"며 "사전설명회 일정을 꼭 숙지해 지역공동체 마중물 일원으로 활동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공동체활성화 주민참여공모사업 세부 내용은 공익활동지원센터 방문·유선 또는 나주시청, 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성택 기자

화순군, 2023년 군민 생활안전보험 운영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지난 13일 고인돌전통시장에서 '2023년 군민 생활안전보험' 홍보를 위해 화순군청, 안전보안관 30여 명이 참석해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군민 생활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화순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군민이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등 총 15종으로 항목별 최대 2천만원을 보장한다.

보험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기존 보장항목 중 ①의료사고 법률지원, ②청소년 유괴·납치·인질, ③미야 찾기 지원금 3종을 제외하되, 신규 보장항목으로 ①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②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③사회재난 사망 3종을 추가했다.

군민 생활안전보험 보험금 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청구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난 2022년에는 화순군민들이 전남도 내 가장 많은 보험금을 신청해 수혜를 받았다"며, "올해도 군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으면서도, 제도를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널리 홍보 또는 안내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남호경 기자

영광 동계 스토브리그 성료

지난 2월 12일 2022~2023 동계 스토브리그(이하'리그')를 성료한 영광군(군수 강종만)이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전국 고등부 축구 19팀 450명의 리그를 시작한 이래 ▲전국 고등·대학부 농구 전지훈련 및 리그 26팀 350명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부 39팀 650명 ▲전국 초·중등부 축구 31팀 775명의 동계전지훈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총 115개 팀 2천225명이며 선수단, 학부모 및 관계자 포함 연인원 4만여 명의 규모이다.

대규모 전지훈련팀이 영광군을 방문하면서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훈풍이 불게 됐다. 선수단 대부분이 군 내에 머무르면서 숙박업소와 식당 및 마트 등 관련 업주들은 겨울철 관광 비수기에 도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 군은 이번 동계전지훈련을 통해 얻은 경제효과를 40억여 원으로 추산했다.

영광군의 동계 전지훈련의 성공적인 맺음에는 군의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투자와 노력이 있었다. 군은 과거부터 전국 주요 도시와의 지리적 접근성과 편리한 도로체계를 바탕으로 스포츠 전지훈련장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갔다.

영광군은 올해도 전국대회를 포함해 51개의 크고 작은 대회를 준비해 스포츠 메카로서의 명목을 이어 나갈 전망이다.

/김진기 기자



황룡강 가을꽃축제는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수십억 송이 다채로운 가을꽃이 매력적인 장성의 대표 꽃축제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다시 열린 지난해 아름다운 야경과 다양한 놀거리, 합리적인 가격의 먹거리가 시너지를 내며 가을이객 맞이기간 포함 77만 명 방문을 기록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장성군 제공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전남 대표축제 선정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2023년 전라남도 대표축제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8년, 2020년, 2022년에 이어 4번째 선정이다.

황룡강 가을꽃축제는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수십억 송이 다채로운 가을꽃이 매력적인 장성의 대표 꽃축제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다시 열린 지난해 아름다운 야경과 다양한 놀거리, 합리적인 가격의 먹거리

가 시너지를 내며 가을이객 맞이기간 포함 77만 명 방문을 기록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전남도는 축제평가단 현장 평가와 축제심사위원회 시군 발표 평가를 합산 심사해 매년 대표축제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대표축제 선정으로 도비 2000만 원을 확보한 장성군은 축제 준비에 한층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유광중 기자

올해 가을꽃축제는 10월 7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다. 군은 장성의 매력이 담백 담백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김한중 군수는 "2023년 전라남도 대표축제 선정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 대표 꽃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노 담양군수, '찾아가는 군민과 대화'

이병노 담양군수가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로 소통 행보에 나섰다. 담양군은 지난 14일 담양읍에서 민선 8기 첫 군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며 2주간의 일정에 막을 올렸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2023년 군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현장의 여론을 듣고 소통하며 군민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에는 보다 많은 군민과 소통하기 위해 현장 질의와 더불어 읍면에서 불편 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미리 받아 답변하는 방식을 더했다.

이날 참석한 군민들은 일상에서 평소 겪었던 애로사항을 비롯해 주요 정책에 관해 묻고,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병노 군수는 "말씀해주시는 문제

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현장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에게 현안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14일 담양읍을 시작으로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14일 담양읍, 봉산면 ▲15일 금성면, 무정면 ▲16일 고서면, 가사문학면 ▲21일 창평면, 대덕면 ▲22일 용면, 월산면 ▲23일 수북면, 대전면 순서로 진행된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경청과 섬김의 원칙으로 가까운 자리에서 소통하며 군민의 어려운 곳을 굽어주는 맞춤형 해답을 찾겠다"며 "민선 8기의 실질적인 원년인 올해 여정 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담양' 건설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강종연 기자

NAJU 우리농가를 살리는 착한 소비!

오색마을 [나주시 쇼핑몰]